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존중감과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이 미 숙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교수

A Study on Adolescents' Body Esteem and Cloth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Mi-Sook Le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3. 2. 7. 접수; 2013. 3. 8. 수정; 2013. 3. 14.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dolescents' body esteem and cloth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The subjects were 750 adolescents in Daejeon and Chungnam province. The research method was a survey methodology and the measuring instruments consisted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body esteem, clothing behaviors, and subjects' demographics attributions. The data were analyzed by Cronbach's α ,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t test, χ^2 tes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using SPS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2 dimensions(internalization and awareness) were emerged on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dolescents were divided into 4 groups (unreceptive group, awareness group, internalized group, and receptive group) by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Second,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adolescents' body esteem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Receptive group had the lower level on body esteem than unreceptive group. Thir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Receptive group had the highest psychological dependency of clothing, clothing interest, clothing individuality, and clothing conformity among 4 groups.

Key Words: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Body esteem(신체존중감), Clothing behaviors(의복행동), Adolescents(청소년)

I. 서 론

현대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외모는 단지 외적인 모습 뿐 아니라 한 개인의 성격, 능력 등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단서로 널리 받아들여짐에 따라, 대인관계, 데이트, 취

업 등과 같이 한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많은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탈 '사람인'의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 인사담당자의 75.7%가 '외모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으며(동아일보, 2011), 대학생들의 무려 98%가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Corresponding author ; Mi-Sook Lee

Tel. +82-41-850-8302, Fax. +82-41-850-8301

E-mail : evanms@kongju.ac.kr

말에 동의하였고 60.8%는 ‘외모로 인해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조선일보, 2011). 또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생 1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차별·편견적 말은 친구로부터는 외모, 부모로부터는 형제간 서열, 교사로부터는 학업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이 중에서 친구로부터 차별·편견적 말을 듣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2).

이러한 외모지상주의의 가치관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나, 특히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외모에 관심이 많고 외모 가꾸기에 열중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외모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대하여 국가 간 차이를 조사한 김완석과 김정식(2007)의 연구를 보면,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 중 한국이 신체의 건강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엔 산하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의 2010년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성형수술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보고되어 외모지상주의 열풍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2).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 널리 만연되어 있는 외모지상주의의 현상은 특히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일생 중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 시기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한 평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윤진, 1993). 또한 청소년들은 매우 감각적이고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아직 현실에 대한 경험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매스미디어에서 제시되는 감각적인 영상에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한상철, 1998). 따라서 TV나 인터넷 등의 감각적인 영상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한국사회의 외모지상주의의 가치관은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내면화되어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은 청소년들의 외모

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 내적인 성장보다는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관심을 갖고 몰두하도록 유도하며,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여 지는 비현실적으로 날씬한 연예인의 모습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체를 이와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미숙, 2012; 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Thompson & Heinberg, 1999). 한편, 의복은 외모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신체적 결함을 보완하고 매력적인 외모를 만들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장희순, 김태련, 2006), 외모에 대한 태도는 또한 외복행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외모지상주의 열풍과 관련하여 남녀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알아보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존중감과 의복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현대사회의 외모지상주의의 가치관은 신체적 매력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더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강화되어 사람들은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이상과 외모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타인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고 의식하게 만들며 이때 형성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신체이미지, 자아개념, 의복행동 및 외모관리행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Heinberg et al, 1995; Thompson & Heinberg, 1999). Heinberg et al. (1995)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SATAQ(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외모의 기준에 대한 인

식과 수용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박광희(2012)는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회문화적 태도의 인식요인보다 내면화요인이 외모관리행동과 더 유의한 관련을 보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할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usumano and Thompson(1997)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개인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내재화하는 개인차에 의해 매개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미숙(2008)은 청소년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외모의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조선명과 고애란(2001)은 여성은 매스미디어에 비취지는 이상적인 외모를 통해 이상적인 미의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체적 외모에 대해 열중하는 인지적, 행동적 성향이 매우 높다고 하였으며, 특히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시기에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인지적, 행동적 차원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 역시 이 시기에 가장 강하게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수경과 고애란(2005)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여자 중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자기존중감, 의복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에 의한 영향이 낮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태도 형성에는 매스미디어에 의한 영향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을 밝혔다.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승연과 박영숙(2008)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아졌으며, 그 결과 왜곡된 섭식태도 및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고 우울경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존중감

신체존중감(Body esteem)이란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나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Mendelson et al, 2001). 신체존중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적응적 섭식행동, 대인관계의 문제, 의복 및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은아, 2003; Garner, 2002; Thompson & Hirschman, 199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신체존중감을 따로 구분하여 조사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신체존중감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장희순과 김태련(2006)은 여자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디오를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 대중매체를 통해 이상적인 신체상에 노출된 피험자들은 신체존중감이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은 특히 고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석(2007)은 한국인의 신체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의 3 요인으로 구성된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 Korean Overall Body Esteem Scale)를 개발하였는데,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존중감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신체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성의 자기존중감이나 주관적 안녕감에는 체기능존중감을 제외한 외모존중감이나 체중존중감만이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외모존중감 외에 체기능존중감과 체질량지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리와 홍지영(2011)은 중·고등학생의 신체존중감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신체존중감은 중간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복행동

의복행동이란 의복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습관, 선택 및 착용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착

용자의 성격, 태도, 가치관, 생활양식 등을 반영한다. 청소년기는 이성에 대한 흥미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의복을 중요시하고 새로운 유행이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게 되므로, 의복이 인간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크게 적용되는 시기이다(Horn & Gurel, 1981).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acGillivray and Wilson(1997)은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의복선택과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혀, 연령과 성별이 청소년기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나타내었다. 고은주와 장남경(200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은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시성과 동조성은 중간수준이었으며, 유행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은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 유행성과 과시성이 더 높았으며, 동조성은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정은과 고애란(1997)은 여고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의복에 관심이 많고 타인을 의식하며 의복을 과시적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정도가 크고, 심리적으로 의복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이은희(2007)는 남녀 고등학생의 의복행동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행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적매력성과 정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자 외(2004)는 남녀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을 연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을 많이 하며 의복관심이 높고 심리적으로 의복에 의존하며 과시적인 의복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조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박성연 외(2001)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미성, 정숙성, 심리적 안정성, 과시성, 의복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고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의복의 미적인 면과 단정한 면을 중요시하며 의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와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이애경 외(2006)는 청소년은 동조성이 높고, 외모관심도, 개성, 상표지

향성도 중간이상이었으나, 유행성과 정숙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관심도와 개성은 여자가 남자보다 중시하는 반면 정숙성은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존중감, 의복행동을 알아보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존중감과 의복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존중감, 의복행동을 알아보고, 이들 변인이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해본다.

둘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라 청소년집단을 분류하여 각 집단이 신체존중감과 의복행동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피험자는 대전과 충남지역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750명으로, 피험자들은 성별(남, 여), 연령집단(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유형(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거주 지역(대전, 충남)을 고려한 편의표집 방법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피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 목		N(%)
성별	남자	310(41.6)
	여자	435(58.4)
학교	중학교	372(49.9)
	고등학교	373(50.1)
학교 유형	남학교	134(17.9)
	여학교	209(27.9)
	남녀공학	407(54.3)
거주 지역	대전	390(52.0)
	충남	360(48.0)
용돈	3만원 미만	320(43.4)
	3-5만원 미만	274(37.1)
	5-10만원 미만	110(14.9)
	10만원 이상	34(4.6)
한달 의류 구입비	5만원 미만	431(58.8)
	5-10만원 미만	168(22.9)
	10-15만원 미만	85(11.6)
	15만원 이상	49(6.7)
가계 월소득	200만원 미만	84(12.3)
	200-400만원 미만	309(45.3)
	400-600만원 미만	159(23.3)
	600만원 이상	130(19.0)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는 크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측정도구, 신체존중감 측정도구, 의복행동 측정도구, 그리고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측정도구는 Heinberg et al.(1995)에 의해 개발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측정도구(SATAQ)를 토대로 8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신뢰도는 .71~.81로 나타났다. 신체존중감 측정도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김완석(2007)의 신체존중감 척도(KOBES) 중 체기능존중감을 제외한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을 조사하는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

도는 .77~.88로 나타났다. 의복행동 측정도구는 청소년의 의복행동을 조사한 선행연구(고은주, 장남경, 2003; 김태미, 최인려, 2011; 이미숙, 2008; 이송자 외, 2004; 이은희, 2007; 최수빈, 조우현, 2003)를 토대로 12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신뢰도는 .68~.83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존중감, 의복행동 측정도구는 모두 5점의 Likert형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5: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다. 그 외에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피험자의 학교, 학교유형, 거주지역, 한달 용돈, 한달 의류구입비, 가계 월 소득에 대한 6 문항이 포함되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1. 3. 29~4. 11.의 약 2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768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하고 750부가 본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도출을 위한 자료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Ver. 18.0)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χ^2 검증, *t*-test, 변량분석(ANOVA)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이 실시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구성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 내면화 요인과 현대 사회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얼마나 인식하며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 인식의 2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7.4%로 나타났다(표 2).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표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구성차원

요인명	구성 문항	요인 적재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 계수
내면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날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83	35.42 (35.42)	.81
	TV나 영화에 나오는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77		
	나는 패션모델이나 유명 연예인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곤 한다	.77		
	나는 패션잡지에 나오는 모델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64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가는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56		
인식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83	22.02 (57.44)	.71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	.82		
	현대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성공하는데 중요하다	.71		
	나는 의복이 마른 사람들에게 더 멋지게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61		

* 결과의 해석을 위해 측정문항의 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입력한 문항임

<표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평균점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전체	성별			연령집단			성별*연령집단				F 값
		남자	여자	t 값	중학생	고등학생	t 값	남자 중학생	여자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내면화	3.21	2.82	3.49	-11.88***	3.01	3.41	-6.87***	2.96 c	3.06 c	3.30 b	3.57 a	19.79***
인식	3.14	3.10	3.17	-1.13	2.95	3.33	-6.85***	2.95 c	2.95 c	3.28 b	3.42 a	16.69***

*** $p < .001$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평균점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내면화 요인의 평균점수는 3.21, 인식 요인의 평균점수는 3.14로 두 요인 모두 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비교적 한국사회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여 자신의 기준으로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청소년의 성과 연령집단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인식 요인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내면화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청소년 모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인식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으나 이를 내면화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여 내면화

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령집단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았다. 청소년을 성과 연령집단에 따라 4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를 보면, 남녀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의 순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점점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아 대체적으로 외모를 중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들의 연령증가와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높게 나타났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이상적인 미의 사회문

<표 4> 신체존중감 구성차원

요인명	구성 문항	요인 적재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 계수
외모 존중감	나는 남들에 비해 예뻐/멋있는 외모를 가졌다	.91	40.00 (40.00)	.88
	나는 나의 외모가 자랑스럽다	.90		
	나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	.85		
체중 존중감	나는 내 몸무게를 생각하면 우울하다*	.88	34.79 (74.79)	.77
	나는 내 키에 지금의 몸무게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85		
	나는 뚱뚱한 것 같아(마른 것 같다) 창피하다*	.72		

* 결과의 해석을 위해 측정문항의 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입력한 문항임

<표 5> 신체존중감 평균점수

신체 존중감	전체	성별		연령집단			성별*연령집단				F 값	
		남자	여자	t 값	중학생	고등학생	t 값	남자 중학생	여자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외모존중감	2.78	2.93	2.67	4.46***	2.66	2.89	-4.01***	2.73 bc	2.60 c	2.87 ab	2.92 a	6.55***
체중존중감	3.19	3.47	2.99	6.82***	3.31	3.07	3.43***	3.32 a	3.30 a	3.07 b	3.06 b	3.93**

** p<.01, *** p<.001

화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체적 외모에 대해 열중하는 성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이미숙, 2008; 조선명, 고애란, 2001)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신체존중감

청소년의 신체존중감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존중감에서는 <표 4>와 같이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의 2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74.5%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신체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평균점수를 도출하였다(표 5). 그 결과, 외모존중감은 2.78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인 반면, 체중존중감은 3.19로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체중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외모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의 신체존중감이

중간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유태영(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의 성과 연령집단에 따라 신체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존중감은 청소년의 성과 연령집단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 모두 낮게 나타났는데, 외모존중감은 남녀 모두 중간 이하였으나 체중존중감의 경우는 남자는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자신의 체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여자는 2.99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체중존중감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은 호르몬의 변화와 신체활동이 적고 학업에 치중하는 생활패턴으로 인해 중학생보다 비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중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외모존중감은 절대적인 점수에서는 중간 이하이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표 6〉 의복행동 차원

요인명	구성 문항	요인 적재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 계수
의복 개성	사람들이 덜 입어서 희소성이 있는 옷을 구매한다 나는 다소 눈에 띄더라도 남과 다른 독특한 의복을 선호하는 편이다 나만의 개성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옷이 좋다	.86 .86 .81	19.29 (19.29)	.83
심리적 의복 의존성	나는 옷차림에 따라 기분이 명랑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한다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으면 외출하기 싫어진다 나는 새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83 .77 .70	18.17 (37.46)	.80
의복 흥미성	나는 옷을 꼭 사지 않더라도 옷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옷이나 액세서리로 변화를 주는 것이 즐겁다 나는 옷이나 패션에 대해 관심이 많다	.81 .79 .75	18.15 (55.60)	.83
의복 동조성	나는 친구들이 옷 입는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옷을 선택한다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스타일이나 색상의 옷을 좋아한다 나는 새 옷을 살 때 친구들이 싫어하는 옷은 사지 않는다	.80 .78 .71	14.92 (70.53)	.68

결과는 급격한 신체적 성장이 주로 중학생 시기에 일어나므로 변화되는 자신의 외모를 수용하는데 일시적인 부적응상태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경향이 높은 반면, 고등학생 시기로 가면서 이러한 경향이 점차 감소되고 자아개념이 확립되어 가므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외모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청소년을 성과 연령집단에 따라 4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를 보면, 외모존중감은 여자 중학생이 여자 고등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존중감은 남녀 중학생이 남녀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복행동

청소년의 의복행동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주 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의복개성, 심리적 의복의존성, 의복흥미성, 의복동조성의 4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70.5%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의복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평균점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의복의존성의 평균점수는 3.18로 4개의 의복행동 요인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복흥미성

과 의복동조성도 중간 이상이었으나, 의복개성은 2.77로 중간이하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높고, 의복에 흥미가 있으며 개성적인 의복차림보다는 또래집단과의 동조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고은주, 장남경, 2003; 이미숙, 2008)의 연구결과와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애경 외(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과 연령집단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의복행동은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성별이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고 한 MacGillivray and Wilson(1997)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표 7>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서는 의복개성을 제외한 3 의복행동 요인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심리적 의복의존성, 의복흥미성, 의복동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를 살펴볼 때도 여자는 위의 3 요인이 모두 중간보다 높은 수준인데 반해 남자의 경우는 중간 이하였으며, t 값을 고려해볼 때 성별에 대한 차이는 특히 의복흥미성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

〈표 7〉 의복행동 평균점수

의복행동	전체	성별			연령집단			성별*연령집단				F 값
		남자	여자	t 값	중학생	고등학생	t 값	남자 중학생	여자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의복개성	2.77	2.70	2.81	-1.87	2.67	2.86	-3.30***	2.59 c	2.75 bc	2.81 ab	2.94 a	5.64***
심리적 의복의존성	3.18	2.79	3.47	-9.75***	3.05	3.32	-3.69***	3.01 b	3.09 b	3.16 b	3.53 a	9.38***
의복흥미성	3.03	2.46	3.43	-14.15***	2.96	3.10	-1.86	2.87 b	3.04 ab	3.02 ab	3.20 a	2.98*
의복동조성	3.10	2.98	3.19	-3.73***	3.06	3.15	-1.58	3.07	3.05	3.15	3.14	.84

* $p < .05$, *** $p < .001$

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심리적 의복의존성과 의복흥미성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고은주, 장남경, 2003; 심정은, 고애란, 1996; 이미숙, 2008; 이송자 외, 2004)의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또래집단과의 의복동조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애란과 김양진(199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나, 일부 선행연구(고은주, 장남경, 2003; 이송자 외, 2004)에서는 동조성이 성별에 따른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 간에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동조성에는 정보정 동조, 동일시적 동조, 규범적 동조 등의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여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문항의 구성에 따른 차이로 인해 연구결과에서 일관적인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원인으로는 연구수행 시기와 피험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집단에서는 의복개성과 심리적 의복의존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의복개성이나 심리적 의복의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심리적 의복의존성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고애란, 김양진, 1996; 고은주, 장남경, 2003; 이미숙, 2008; 이송자 외, 2004)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청소년을 성과 연령집단에 따라 4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의복개성과 심리적 의복의존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 고등학생이 남자 중학생보다 의복개성이 높았으며, 심

리적 의복의존성에서도 여자 고등학생이 다른 집단보다 심리적 의복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존중감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토대로 청소년 집단을 분류하고자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내면화하는 정도 또한 매우 낮은 비수용형, 외모의 사회문화적 기준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정도는 약한 인식형, 외모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나 내면화하는 정도는 높은 내면화형, 그리고 외모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해 매우 수용적이며 이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정도 또한 매우 높은 수용형의 4 집단으로 구분되었다(표 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청소년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집단,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χ^2 값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차이는 특히 청소년의 성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표 9).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비수용형과 인식형은 남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

〈표 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군집유형	비수용형 (n=170)	인식형 (n=236)	내면화형 (n=182)	수용형 (n=154)	F 값
내면화		2.27	2.90	3.79	4.07	571.16***
인식		2.27	3.38	2.49	4.14	548.55***

*** p<.001

〈표 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군집유형	비수용형	인식형	내면화형	수용형	χ^2 값
성별	남자		97(57.7)	133(56.4)	33(18.4)	43(27.9)	90.60***
	여자		71(42.3)	103(43.6)	146(81.6)	111(72.1)	
연령 집단	중학생		111(66.1)	127(53.8)	89(49.7)	41(26.6)	52.40***
	고등학생		57(33.9)	109(46.2)	90(50.3)	113(73.4)	
거주 지역	대전		85(50.0)	113(47.9)	91(50.0)	98(63.6)	10.52*
	충남		85(50.0)	123(52.1)	91(50.0)	56(36.4)	

* p<.05, ***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 제시하였음

〈표 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별 신체존중감

신체존중감	군집유형	비수용형	인식형	내면화형	수용형	F 값
외모존중감		2.83 a	2.86 a	2.76 a	2.60 b	4.36**
체중존중감		3.61 a	3.31 b	2.99 c	2.74 d	27.95***

** p<.01, *** p<.001

면, 수용형은 여자의 비율이 72.1%, 내면화형은 81.6%로 매우 높게 나타나, 남자보다는 여자가 외모의 사회문화적 기준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비수용형은 중학생이 전체의 약 2/3를 차지하였으나, 인식형, 내면화형, 수용형으로 갈수록 중학생의 비율은 점차 적어지고 고등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용형의 경우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73.6%로 매우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현대사회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χ^2

값을 고려해볼 때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보다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수용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충남보다는 인구밀도가 높고 대도시에 속하는 대전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0).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에 따라 신체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수용형이 다른 유형보다 외모존중감이 낮았으며 체중존중감은 비수용형이 가장 높고 인식형, 내면화형, 수용형의 순으로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외모를 중시하는

<표 1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별 의복행동

의복행동	군집유형	비수용형	인식형	내면화형	수용형	F 값
의복 개성		2.60 c	2.73 bc	2.85 ab	2.91 a	4.92**
심리적 의복의존성		2.56 d	2.98 c	3.52 b	3.77 a	65.70***
의복 흥미성		2.50 c	2.82 b	3.43 a	3.43 a	41.22***
의복 동조성		2.99 b	3.07 ab	3.21 a	3.16 a	3.00*

* $p<.05$, ** $p<.01$, *** $p<.001$

사회문화적 기준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전반적인 외모보다는 특히 체중에 대한 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비현실적으로 날씬한 외모가 이 사회의 이상적인 미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영향 때문에 청소년들이 외모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도 특히 체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체중을 이러한 사회문화적 기준과 비교 평가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인식하고 내면화할수록 신체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이승연과 박영숙(2008)의 연구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가 긍정적·부정적 체중관리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황윤정과 유태순(201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의복행동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1).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었으며, F 값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차이는 특히 심리적 의복의존성과 의복흥미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의복개성 요인에서는 수용형이 비수용형보다 자신의 개성과 독특성

을 표현할 수 있는 의복행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의복의존성 요인에서는 수용형이 가장 의복변화에 따라 심리적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내면화형, 인식형, 비수용형의 순으로 심리적 의복의존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흥미성 요인에서는 수용형과 내면화형이 가장 의복에 흥미가 있는 반면, 비수용형은 4 유형 중에서 가장 의복에 흥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 동조성 요인에서는 내면화형과 수용형이 비수용형에 비해 친구와 유사한 의복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의복관심과 심리적 의복의존성이 높고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의복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의복동조성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이미숙, 2008)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기 위해 의복을 포함한 다양한 외모관리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박광희, 2012; 전정혜, 유태순, 2011; 황윤정, 유태순, 2010)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V. 결론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존중감, 의복행동을 알아보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존중감과 의복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연

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요인분석 결과 내면화와 인식의 2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비교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더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존중감은 요인분석 결과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외모존중감은 낮으나 체중존중감은 중간 이상이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이 낮았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외모존중감은 낮았으나 체중존중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의복행동은 요인분석 결과 의복개성, 심리적 의복의존성, 의복흥미성, 의복동조성의 4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심리적 의복의존성, 의복동조성, 의복흥미성은 중간 이상이었으나 의복개성은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과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심리적 의복의존성, 의복흥미성, 의복동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의복개성과 심리적 의복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라 군집분석한 결과, 비수용형, 인식형, 내면화형, 수용형의 4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수용형이 다른 유형보다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체중존중감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수용형은 다른 유형보다 의복개성, 심리적 의복의존성이 높았으며, 수용형과 내면화형이 다른 유형보다 의복흥미성과 의복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였

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지닌 청소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낮은 신체존중감을 지니고, 사회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함으로써 의복에 더 많은 흥미를 갖고 의복차림에 따라 심리적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친구들과 유사한 의복행동을 하면서도 의복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강화되어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러한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와 외모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신체존중감을 형성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의복에 관심을 갖고 의복차림에 따라 심리적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등 필요이상으로 외모에 치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와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날씬하고 서구화된 미를 추구하는 한국 사회의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벗어나,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신체존중감과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외모 지상주의 열풍을 부추기는 상업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옥외광고나 다양한 매스미디어 프로그램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수용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경향은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연령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경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과 연령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하는 요인들과 요인간의 관계를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태도 형성을 이해하고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전과 충남지역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한 후속연구로는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양적인 연구 위주로 진행되어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양한 연령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청소년이 바람직한 외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모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이들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과 관계 모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고애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기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 고은주, 장남경. (2003). 연령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 연구를 통한 패션 마케팅 전략제안. *대한가정학회지*, 41(12), 13-26.
- 김완석. (2007).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 개발 및 성차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231-253.
- 김완석, 김정식. (2007). 동아시아 여대생들의 신체 가치관과 신체존중감: 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4), 113-134.
- 김태미, 최인려. (201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3), 69-80.
- 박광희. (2012). 인지연령,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5(7), 756-766.
- 박성연, 이종미, 임숙자. (2001).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식생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8), 1-18.
- 박은아. (2003). 객체화된 신체의식척도 한국적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35-56.
- 심정은, 고애란. (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334-1345.
- 유정미, 홍지영. (2011). 중·고등학생의 신체존중감, 완벽주의, 자이통제가 식이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2(4), 115-136.
- 윤진. (1993). *청소년 심리학*. 도서출판: 서원.
- 이미숙. (2012).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이 여자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4(4), 163-177.
- 이미숙. (200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8(6), 96-109.
- 이승자, 광인숙, 이수정. (2004). 남·녀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4), 467-474.
- 이수경, 고애란. (2005). 여자 중학생의 신체성장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한국의류학회지*, 29(3/4), 438-448.
- 이승연, 박영숙. (2008). 여자 고등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 신체만족도, 섭식태도,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16(4), 325-333.
- 이에경, 이해자, 한영숙. (2006).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교복만족도 및 교복변형행동.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3), 133-148.
- 이은희. (2007).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 외모와 의복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1), 49-58.
- 장희순, 김태린. (2006). 대중매체 노출이 신체상 지각과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2), 57-83.
- 전정혜, 유태순. (2011). 공적 자의의식과 외모에

-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객체화된 신체이식이 이미지 관리행동에 미치는 인과관계. *한국의류학회지*, 35(11), 1333-1345.
- 조선명, 고애란. (2001).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 최수빈, 조우현. (2003). 서울·인천 중고등학교의 신체만족도와 선호스타일에 따른 의복행동 및 의복구매행동.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5(3), 99-110.
- 한상철. (1998). *청소년학 개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황윤정, 유태순. (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체중 및 의복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4(11), 1923-1932.
- 기업 76% 외모 채용에 영향 미친다...인상, 옷차림 등. (2011. 1. 13).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2. 12. 19, 자료출처 <http://news.donga.com>
- 대학생 84% “예쁘고 멋지면 취업도 잘돼”. (2011. 11. 16).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12. 12. 19, 자료출처 <http://edu.chosun.com>
- 한국, 단위 인구 당 성형수술 건수 세계 1위. (2012. 4. 24).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12. 12. 19, 자료출처 <http://news.chosun.com>
- 학생들이 꼽는 차별적 발언은 외모·형제비교·성적. (2012. 10. 7).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12. 12. 19, 자료출처 <http://news.chosun.com>
- Cusumano, D. L., & Thompson, J. K. (1997). Body image and body shape ideals in magazines: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37(9/10), 701-721.
- Garner, D. M. (2002). *Body image and anorexia nervosa* In T. F. Cash & T. Pruzinsky(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New York: Guilford.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MacGillivray, M. S., & Wilson, J. D. (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1), 43-59.
- Mendelson, M., Mendelson, B. K., & White, D. R. (2001). Body 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6(1), 90-106.
- Thompson, J. K., & Heinberg, L. J.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
- Thompson, C. J., & Hirschman, E. C. (1995). Understanding the socialized body: A postructuralist analysis of consumers' self-conceptions, body image and self-care pract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 139-153.